

고시 오늘 발효... 빗장 풀린 美 쇠고기

대기 물량 5,300t 내주 유통 가능성

검역 끝난 7천여t 내달초 美서 선적 LA갈비 등은 8월 하순 들어올 듯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26일 발효되면 지난해 10월 등...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의뢰한 바로 다음날인 26일 관보에...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소의 모든 식육부위와 이를 활용해 생산된 제품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부칙 7항에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무부가...

수출 검역까지 마쳤으나 검역 및 선적 중단된 통비치항구 창고 등의 빼 없는 살코기 7천여t이 한국으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쇠고기는 보통 후인 다음 달 중순께 한국에 도착, 역시 3~4일 뒤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뢰문제로 고시 후 美와 서명”

김중훈 본부장 일문일답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와 연계해 추가 협상을 끝내기를 희망했고 양측 간에 신뢰의 문제가 있었다”며 미국이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치로 QSA 프로그램을 위반하는 업자는 프로그램에서 탈퇴시킬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수출증명이 없으면 돌려보낸다. -추가협상에 대해 '협상'인지, '논의'인지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상당한 실질적인 내용을 건넸기 때문에 추가협상은 분명하다. 미 무역대표부 소식지에 실리는 뉴스를 보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압축해서 다루어 그렇다. 소식지에는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한 조치가 담겨있지 않다고 하는데 합의문과 고시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반응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 쪽에서 한국의 고시가 발효되는 것을 보고 사인하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를 못마땅이 그런 것인가. -미국 쪽도 조심스럽게 했고 저도 그렇게 해석해서 들었다. 4월18일 처음 합의했다가 고시를 연기하는 등 상대방 입장에서 두 번이나 고시를 연기한 것에 대해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처음부터 추가 협상 수준의 협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제 기준인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 있으니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정부에서도 국제기준을 존중해 협상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우리는 시간을 갖고 하고 싶었고 미국이 모든 연령·부위 (수입을) 요구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이 25일 오후 청와대를 향의 방문해 미국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고시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25일 정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 게재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강경 투쟁 방침으로 선회했다.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고 행정 절차법에 따라 예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고 한나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률 수용하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선량한 시민과 네티즌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의총을 마치고 청와대 앞으로 물러가 고시 연기를 촉구하는 집단 시위를 벌인 데 이어 국회에서 24시간 농성에 돌입했다. 자유선진당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빠져진 사과를 하고도 정당한 절차까지 무시하며 관보 게재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당 지도부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보 게재 철회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30개월 미만 美 정부 보증’ 등 부칙에 명시

고시에 추가협상 어떻게 반영됐다

정부가 아직 꺼지지 않은 ‘촛불’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결정했다. 25일 관보 게재 의뢰된 고시 내용 가운데 수입위생조건 부분은 지난달 말 첫번째 고시 의뢰 발표 당시와 비교해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다만 13~19일 한미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 합의된 ▲30개월 미만 쇠고기 미국 정부 보증 ▲머리뼈·뇌·눈·척수 수입금지 품목 추가 ▲미국 검역장 점검 및 작업 중단 관련 검역조건 강화 등의 세 가지 내용이 부칙 7~9항으로 명시됐다. 다음은 수입위생조건 부칙 7~9항 원문. <7항 30개월 미만 QSA 검증=부칙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결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림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 결과 조치 기간에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송한다. <8항 뇌·눈·머리뼈·척수 수입금지=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9항 검역 권한 명시=본 수입위생조건 제8조의 해석과 관련, 대표적 있는 표본에 대한 현지 점검시 한국 정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점검단이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점검단은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즉시 미국 정부 관계관과 협의한다. 이 기술적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양국 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한다. 양국 정부가 4주 이내 적절한 개선 조치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 정부는 비록 해당 작업장 제품을 대한 수입 검역검사 과정에서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되지 않았다더라도 해당 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다섯 차례 선적분에 대해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검사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5년 연속 국내판매 1위' (5 years consecutive domestic sales No. 1) for Acura. Includes text '아큐-책이 유럽여행을 보내드립니다!' and details about a '5년 연속 국내판매 1위 기념 아큐-책 소개행사 이벤트' (5-year consecutive domestic sales No. 1 commemorative Acura book introduction event) with dates June 27-28. The ad features an image of a man holding a book and the Acura logo.